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, 통화정책 전망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
 - 러시아, 5/27일 만기 도래한 부채 및 이자 상환 발표, 채권자 지급 여부는 불확실
 - 중국 4월 공업부문 기업이익, 전월비 큰 폭 감소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반영
 - 일본은행 총재, 향후 1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 내외를 기록할 전망
- **국제금융시장(주간):**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6.6%], 달러화 약세[-1.4%], 금리 하락[-4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양호한 소비 지속 기대와 기업실적 개선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 지수는 독일의 양호한 경기 지표 등으로 3.0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ECB의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6%, 0.6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이 영향
 독일은 ECB의 예상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 가능성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0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5/27일	5/20일	전주말대비			5/27일	5/20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158.2	3,901.4	6.58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4%	2.78%	-4bp
	유럽	443.93	431.10	2.98%		독일	0.96%	0.94%	2bp
	중국	3,130.2	3,146.6	-0.52%	CDS 5y	한국	46bp	48bp	-2bp
	일본	26,782	26,739	0.16%		중국	71bp	84bp	-13bp
	한국	2,638.1	2,639.3	-0.05%	위험 지표	EMBI+	391	421	-30bp
환율	달러지수	101.67	103.15	-1.44%		VIX	25.72	29.43	-12.61%
	유로화	1.0735	1.0564	1.62%		WTI유	115.07	113.23	1.63%
	엔화	127.11	127.88	0.61%	원자재	구리	430.7	428.1	0.60%
	위안화	6.6994	6.6930	-0.10%		금	1,853.7	1,846.5	0.39%
	원화	1,256.2	1,268.1	0.9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, 통화정책 전망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

- 6/3일(금) 5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번 결과가 통화정책 전망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주목.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으로 다소 낮아진 금리인상 전망의 복귀 여부 등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
-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비 30~32.5만명 늘어 4월(42.8만) 대비 감소 예상. 실업률은 3.6%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. 임금 상승률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0.3%, 5.2%로 3월(0.3%, 5.5%) 대비 보합 혹은 소폭 하락 전망
- 이러한 예상이 정확하다면, 노동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이나 월간 취업자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. 연준은 이를 토대로 일자리 증가 둔화가 물가상승세 완화로 이어지는지 좀 더 기다리면서 확인할 것으로 판단
- Capital Economics의 Michael Pearce는 일시적인 일자리 증가 둔화 신호로 연준이 6월 및 7월 0.5%p 금리인상 방안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. 그러나 가을에는 금리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위원의 수가 증가할 소지
- 한편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최근 9월에 정책금리 인상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, 이는 시기상조라고 지적. 다만 연말에는 연준의 다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전 재무장관,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를 적극 지지

- 서머스 전 장관은 통화당국이 마침내 전반적으로 적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. 반면 정책금리 목표를 언제 달성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. 한편 이제 이후로는 제기되었던 통화정책들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

■ 러시아, 5/27일 만기 도래한 부채 및 이자 상환 발표. 채권자 지급 여부는 불확실

- 재무부는 예탁결제원(NSD)을 통해 5/27일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. 다만 해당 자금이 미국의 제재 등으로 채권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. 이에 1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채권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것으로 예상

■ EU,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에 실패. 합의를 위한 시도는 계속 추진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일부 국가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여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려운 상황. 특히 헝가리, 슬로바키아 등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

■ 중국 상하이시,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발표

- 상하이시 당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환급 확대,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.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승인의 속도를 높이고, 신규 주택 공급도 촉진할 계획

■ 중국 4월 공업부문 기업이익, 전월비 큰 폭 감소.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반영

- 해당 이익은 전년동월비 8.5% 줄어 '20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. 통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으로 기업활동이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이익이 줄었다고 평가.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

■ 일본은행 총재, 향후 1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 내외를 기록할 전망

- 구로다 총재는 임금인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. 또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만으로 현행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즉각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 피력
- 기시다 총리는 재원 마련 측면에서 소비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. 다만 다양한 차원에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부연

■ G7, 단계적인 석탄 연료 폐지에 합의. 구체적인 기한은 미제시

- 해당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OPEC이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촉구. 또한 OPEC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도매재고(전월비): 2.1%, 3월(2.7%), 예상치(2.0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일, 연준 월러 이사 강연, 독일 5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금융시장 리스크, 유동성 부족 및 그림자 금융 등을 주의할 필요 - WSJ

(Where to Look for the Next Wall Street Blowup)

- 최근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에도 거론되는 문제는 거의 없는 상황. 이는 투자자들이 과거 크고 작은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었고, 이에 더해 '08년 금융개혁 이후 향상된 은행 건전성 등에 기인
- 다만 주요 통화당국의 유동성 축소는 기업의 부채 연장을 어렵게 하여 금융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. 또한 우량 채권의 수익률 상승으로 그림자 금융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하면, 그림자 금융에 의존하던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

■ 미국 소비, 고물가와 임금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방 압력 강화될 가능성 - 블룸버그

(Did US Consumer Spending Just Hit Its Peak?)

- 4월 실질 가계지출은 전월비 0.7% 늘어 양호한 증가세 확인. 사상 최대 수준인 저축액과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이 전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. 한편 개인 저축률은 4.4%를 기록해 '09년 이래 최저 수준
- 이는 물가가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한 결과.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근의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. 아울러 5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 등도 향후 소비 전망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

■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적자 해소 방안, 중산층에 부담이 집중될 우려 - Financial Times

(Reducing the US deficit will mean pain for the middle classes)

■ 영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 검토, 실질적 에너지 공급 확대는 기대난 - 블룸버그

(Sunak's Tax Helps Consumers But Misses the Energy Mark)

■ 신흥국 채권의 매도 증가, 고물가글로벌 긴축 기조 등으로 지속될 전망 - Financial Times

(Emerging markets hit by worst sell-off in decad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